

Community that endures & ease pain together



고통을 함께 견디는 위로의 공동체

# 순장교구장 RETREAT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_ 롬 12:15

2024. 11. 3. 바셀 캠퍼스 본당 오후 2-7시



시애틀형제교회  
COMMUNITY CHURCH OF SEATTLE

# 고통을 함께 견디는 위로의 공동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형제 공동체에 특별한 시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교라는 주제로 온 공동체가 캠페인을 가지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 마음으로 많은 사역팀들이 미국과 세계로 나아가 이웃리치로 섬겼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길을 함께 걷고 있는 형제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목자의 마음을 품고 순원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신 순장 교구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제 감사의 계절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는 수많은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에 감사합니다. 쉽지 않은 이민자의 삶을 견디고, 우리를 형제 교회로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섬기는 귀한 순장 교구장의 역할을 맡겨주심도 감사합니다. 11월에는 형제의 가정과 사역과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목이 더욱 풍성하게 부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순장 교구장 리트릿의 주제는 '고통을 함께 견디는 위로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상하지 못한 여러 고통들을 경험하는 형제 가족들이 있습니다. 고통을 경험할 때, 만약 혼자 있다면 우리는 실패하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고통을 극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극도로 힘든 고통의 시기를 함께 견디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라면 견디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 리트릿에서는 순에서 여러 고통을 겪고 있는 형제 가족들을 함께 위로하는 마음과 지혜를 나눕니다. 이번 리트릿을 통해서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  
**목차**

순장님께 드리는 편지	02
강의안 1	04
강의안 2	05
순모임 프리뷰 1	07
순모임 프리뷰 2	13
11월 주요 사역일정과 기도제목	21
2025 순모임 프리뷰 일정	23



## 강의안 1

# 고통을 함께 견디는 위로의 공동체

남현수 목사

### 고통의 두 가지 모습

- 1 나의 잘못으로 인해 생기는 고통
- 2 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겪게 되는 고통

### 고통은 왜 우리 삶에 존재하는가?

- 1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신가?
- 2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 않은가?

###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전해야 할 하나님

- 1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마태복음 27:46) vs. 절대적인 하나님
- 2 우리와 함께 울어 주시는 하나님 (이사야 53:4, 시편 56:8) vs. 멀리 계신 하나님
- 3 창조주 하나님 (욥기 38:4-7) vs. 인과응보의 하나님

### 토론질문

내가 고통을 겪을 때 누군가에게 들어서 위로가 되었던 말과, 오히려 낙담하게 했던 말은 무엇이었나요? 그렇게 느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 강의안 2

# 서로 위로하는 손, 천천히 깊게 호흡하다



천희선 교수

고통의 중심에는 대부분 어떤 종류의 상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가지 상실의 유형을 적어 봅니다.

상실에 대한 반응은 전면적으로 일어납니다. 상실에 대한 5가지의 반응을 적어 봅니다.

애도란 [ ] 에 대한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이는 [ ] 으로 나타나며 극히 [ ]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 ] 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후 겪게 되는 반응인 애도는 자극히 [ ] 반응이고, 이런 반응은 절대 당신이 [ ] 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 애도의 과정

초기 충격 → 고통스러운 현실과 씨름 → [ ] → 상실을 현실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 → 애도 대상과의 관계를 [ ] 하고 삶을 이어나감

애도의 과정은 정해진 단계와 시간표에 따라 [ ] 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아니며 복잡한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실로 인한 고통을 함께 견디는 위로의 중심에는 [ ] 이 있습니다.

Compassion은 고통 중에 있는 상대의 마음을 함께 [ ] 하며, 그 고통의 짐을 나누고자 하는 [ ] 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경계를 인식하는 [ ] 하는 공감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

**위로가 어려운 이유:** Compassion을 느끼며 내 안의 불편하고 부정적인 감정/ 경험/ 기억 등이 건드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이런 부정적/ 불편한 감정을 다루기 위해 조금해 지고, [ ] 을 찾으려 [ ] 을 하거나 [ ]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 Compassion을 순기능으로 작동하는 방법

- 1 공감으로 상대의 애도 과정과 그 마음에 관심을 두고 [ ] 을 줄이고 [ ] 을 해 줍니다.
- 2 하나님께서 주신 [ ] 을 통해서 스스로의 상태를 인지하고 안정감을 되찾습니다.
- 3 선부른 총조평판을 뺍니다.
- 4 가능하다면 애도의 [ ] 기간뿐 아니라 [ ] 등에 관심을 나눕니다.
- 5 본인의 애도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에게 compassion을 나누며 필요에 따라 위로를 요청할 수 있는 [ ] 를 냅니다.

### 마치며

고통에 있는 순원들을 위한( )를 실천합니다.

**한국어 예** 하나님, 저의 삶과 관계에 부여하신 모든 평강과 축복에 감사합니다. 제 (상대방의 이름)를 계속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그에게 힘과 나아갈 바를 보여주세요. 저는 주님이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심을 믿습니다. 제 (상대방의 이름)에게 선한 것들을 부여하시고 제가 그의 삶에 축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어 예** “Dear Lord, thank you for all the things that are going well in my life and in my relationship. Please continue to protect and guide my partner, providing strength and direction every day. I know you are the source of all good things. Please bring those good things to my partner and make me a blessing in my partner’s life. Amen.”

### 토론질문

나는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이를 어떻게 알리는지 /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눠봅니다.



목자의 마음으로 순원을 품는

# 순모임 프리뷰

순모임용

생명의 삶 나눔식 소그룹 3, 11월 13일 본문, P182 |

## 마음 열기 Ice Breakers

내가 지금까지 운전해서 통과했던 터널들 중 가장 길었던 터널에 대해서 대화해 보십시오. 그 터널이 있는 나라, 도시, 길이 등에 대해서 대화해 보십시오.

**연결어** 현대 사회가 발전하면서 점점 더 긴 터널들이 건설됩니다. 그런데, 터널의 특징은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캄캄한 지점을 지나서 출구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캄캄한 터널 같은 시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순모임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 말씀 함께 읽기 Examine God's Word

시편 70:1-5을 함께 읽어보세요. 반복되는 단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에 동그라미나 밑줄로 표기해 보십시오.

## 배경 이해하기 Understand Setting

시편 70편은 시편 기자가 원수들에게 쫓기며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탄원시 또는 탄식시입니다. 시 70편의 내용을 통해서 시인이 처한 상황이 매우 위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인생에서 만나는 캄캄한 순간에 굳건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권면합니다. 또한,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전을 가지도록 도전합니다.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이 시 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인도자의 지휘를 따라서 제사를 드릴 때 공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표제어는 우리가 사를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순모임을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가 어려움의 시기를 지날 때 가져야 할 성경적인 자세를 살펴봅니다.

## 말씀 묵상 나눔 Meditate the Text

**1-1 < 관찰과 묵상 >** 시편 기자는 목숨이 위협당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었나요?(1절)

1-2 < 적용과 나눔 > 어려움과 위기가 닥칠 때 내가 도움을 구하는 첫 번째 대상은 누구인가요?

---

2-1 < 관찰과 묵상 > 시편 기자는 '주를 찾는 모든 자들과'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간구했나요?(4절)

---

2-2 < 적용과 나눔 >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는 시편 기자의 기도를 보며,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 돌아보세요.

---

### 말씀다지기 Review the text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도 예외 없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신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속히 개입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자는 고통이 지나간 후,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비전을 미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비전을 가진 신자는 현재의 어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지나가게 될 고난 속에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고난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녀들을 돌보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 말씀으로 기도하기 Pray through the text

- 1 내가 경험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시고, 속히 개입하여 주시며,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주소서.
- 2 고통 가운데 돌보시며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광 돌리는 비전이 성취되게 하소서.





목자의 마음으로 순원을 품는

# 순모임 프리뷰

순장용

생명의 삶 나눔식 소그룹 3, 11월 13일 본문, P182

## 마음 열기 Ice Breakers

내가 지금까지 운전해서 통과했던 터널들 중 가장 길었던 터널에 대해서 대화해 보십시오. 그 터널이 있는 나라, 도시, 길이 등에 대해서 대화해 보십시오.

**연결어** 현대 사회가 발전하면서 점점 더 긴 터널들이 건설됩니다. 그런데, 터널의 특징은 아무리 길어도 반드시 캄캄한 지점을 지나서 출구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캄캄한 터널 같은 시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오늘 순모임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 말씀 함께 읽기 Examine God's Word

시편 70:1-5을 여러 번역본으로 읽어보십시오. 반복되는 단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에 동그라미나 밑줄로 표기해 보십시오.

개정개역	우리말성경	ESV
70:1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2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안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3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4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70:1 오 하나님여, 어서 나를 구원하소서. 오 여호와여, 어서 빨리 나를 도우소서. 2 내 영혼을 노리는 사람들이 수치와 망신을 당하게 하소서. 내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모두 당황해 물러나게 하소서. 3 내게 “아하, 아하”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물러나게 하소서. 4 그러나 주를 찾는 사람들은 모두 주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소서!” 하고 끊임없이 말하게 하소서.	70:1 [To the choirmaster. Of David, for the memorial offering.] Make haste, O God, to deliver me! O LORD, make haste to help me! 2 Let them be put to shame and confusion who seek my life! Let them be turned back and brought to dishonor who desire my hurt! 3 Let them turn back because of their shame who say, “Aha, Aha!” 4 May all who seek you rejoice and be glad in you! May those who love your salvation say evermore, “God is great!”

5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5 그러나 나는 가난하고 구차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어서 내게 오소서. 주는 내 도움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분이니 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5 But I am poor and needy; hasten to me, O God! You are my help and my deliverer; O LORD, do not delay!

## 배경 이해하기 Understand Setting

시편 70편은 시편 기자가 원수들에게 쫓기며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탄원시 또는 탄식시입니다. 시 70편의 내용을 통해서 시인이 처한 상황이 매우 위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시를 통해서 인생에서 만나는 캄캄한 순간에 굳건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권면합니다. 또한,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전을 가지도록 도전합니다.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이 시 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인도자의 지휘를 따라서 제사를 드릴 때 공적으로 사용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표제어는 우리가 시를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순모임을 통해서 개인과 공동체가 어려움의 시기를 지날 때 가져야 할 성경적인 자세를 살펴봅니다.

## 말씀 묵상 나눔 Meditate the Text

**1-1 < 관찰과 묵상 >** 시편 기자는 목숨이 위협당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었나요?(1절)

다윗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속히 도와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해설** 시편 70편에는 시편 전체에서 흔하지 않은 “속히”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시편 전체에서 네 번 언급 되었는데, 시편 70편과 71편에 각각 한 번씩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70편과 71편이 같은 저자, 또는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시인이 처한 상황이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함을 암시합니다.

**1-2 < 적용과 나눔 >** 어려움과 위기가 닥칠 때 내가 도움을 구하는 첫 번째 대상은 누구인가요?

**해설** 최근에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누어 보십시오. ‘속히’라는 표현은 저자가 처한 간절한 상황을 암시합니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속히 개입해 주시도록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다가온 고난을 경험할 때, 가장 먼저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여 두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2-1 < 관찰과 묵상 >** 시편 기자는 '주를 찾는 모든 자들과'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간구했나요?(4절)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해설** 시인은 회복에 대한 비전에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비록 눈 앞에 캄캄한 상황이 있더라도,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고난의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인내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2-2 < 적용과 나눔 >**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는 시편 기자의 기도를 보며,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 돌아보세요.

**해설** 우리는 어려움을 경험할 때, 시인의 모범을 따라서 속히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고통 중에 가져야 할 성경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이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 지나간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것이라는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생각한다면, 오늘 만나는 고통을 조금 더 기다릴 용기가 생깁니다.

### 말씀다지기 Review the text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도 예외 없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신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속히 개입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자는 고통이 지나간 후,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비전을 미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비전을 가진 신자는 현재의 어려움에 매몰되지 않고, 지나가게 될 고난 속에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고난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 말씀으로 기도하기 Pray through the text

- 1 내가 경험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시고, 속히 개입하여 주시며,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주소서.
- 2 고통 가운데 돌보시며 능력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광 돌리는 비전이 성취되게 하소서.

**1절a** 속히 시편 70편에는 시편 전체에서 흔하지 않은 “속히”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시편 70편과 71편에 각각 한 번씩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70편과 71편이 같은 저자, 또는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속히’라는 표현은 저자가 처한 간절한 상황을 암시합니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속히 개입해 주시도록 간절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Both psalms are laments or pleas for delivery from trouble and share specific phrases associated with their pleas. The unusual word ḥūšāh (“hasten, come quickly”) appears twice in Psalm 70 (70:1, 5) and once in Psalm 71 (71:12)—twice with a preceding le ‘ezrati (lit., “to my aid/help”; 70:1; 71:12).” \_ Gerald H. Wilson, Psalm in NIV Application, 638.

**2절** 수치, 무안, 수모 시편의 저자는 70편과 71편에서 비슷한 세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시편의 저자는 자신에게 악을 행했던 적들이 개인적인 처벌을 받을 뿐 아니라, 공개적인 수치로 갚아 주실 것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악을 갚아 주시는 심판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이시며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3절** 아하, 아하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의성어로서 어려움을 당한 시인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고난의 시기를 지나는 이웃을 볼 때, 성급하게 표현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While the psalmist’s enemies respond to his situation with the deprecating expression “Aha! Aha!” (something akin to a rather unsympathetic “Isn’t it just too bad about . . .”), he points the way to exaltation of God even in difficult circumstances.” \_Wilson, Psalm in NIV Application, 639.

**4절** 주를 찾는 모든 자들 이 표현은 2절에서 언급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과 병행 구조로 배열되었습니다. 2절에서는 자신에게 악을 행하던 자들이 있었지만, 4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들로 시각을 전환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기초하여 회복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앞이 캄캄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고난의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인내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There is an intentional contrast developed here between “those who seek” his life and ruin (70:2) and “all who seek” God (70:4). The former say “Aha! Aha!” while the latter cry out, “Let God be exalted!” For the former the psalmist desires shame and disgrace (70:2), while the latter will “rejoice and be glad” in God (70:4).” \_Wilson, Psalm in NIV Application, 639.

**5절**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시인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스스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고난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인내의 길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Consequently, their only recourse in the face of oppression is to trust in God for deliverance and redress. The psalmist acknowledges his weakness and reliance on God and couples this desperate vulnerability with an expression of confidence (“You are my help and my deliverer”) to heighten the final appeal for God’s immediate response (70:5).” \_Wilson, Psalm in NIV Application, 649.



목자의 마음으로 순원을 품는

# 순모임 프리뷰

순모임용

| 생명의 삶 나눔식 소그룹 4, 10월 21일 본문, P186 |

## 마음 열기 Ice Breakers

서울 합정동 양화진에는 조선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드렸던 선교사님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1885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에 찾아온 선교사님 수가 1559명입니다. 그중 양화진에는 조선에서 사역하다 순교한 395명의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선교사님들,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셔서 조선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 결과 은혜의 복음이 나와 가족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연결어** 양화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을 나누어 보십시오.

## 말씀 함께 읽기 Examine God's Word

요한계시록 2:1-11을 여러 번역본으로 읽어보십시오. 반복되는 단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에 동그라미나 밑줄로 표기해 보십시오.

## 배경 이해하기 Understand Setting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당시 세 개의 큰 교역로가 통과하는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으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우상숭배의 본거지이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에베소는 그 당시 대도시였습니다.

서머나는 에베소로부터 북쪽으로 약 37마일 떨어져 있는 항구도시였습니다. 파고스 언덕 기슭이 있어서 자연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했던 도시였습니다. 항구를 통해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로마 신전이 세워졌던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교회에 주신 메세지를 통해 현대 교회들이 기억해야 할 성경적 원리를 살펴봅니다.

## 말씀 묵상 나눔 Meditate the Text

**1-1 < 관찰과 묵상 >**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한 인내로 칭찬받은 한편, 주님께 어떤 책망을 받았나요?(4절)

**1-2 < 적용과 나눔 >** 내가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가졌던 감격, 열정, 사랑의 경험을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을 지속하기 위한 다짐과 방법을 나누어 보십시오.

---

**2-1 < 관찰과 묵상 >**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던 서머나 교회에 대해 주님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나요?(9절)

---

**2-2 < 적용과 나눔 >**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답답한 상황 속에 놓일 때 나는 어떻게 인내하거나 극복하는지 나누어 보세요.

---

**말씀다지기** Review the text

---

주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주변에는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에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고 사형에 처해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시기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셨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옳게 분별하며, 처음 사랑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Pray through the text

---

- 1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 2 비록 내가 지금 경험하는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소서.



목자의 마음으로 순원을 품는

# 순모임 프리뷰

순장용

| 생명의 삶 나눔식 소그룹 4, 11월 20일 본문, P184 |

## 마음 열기 Ice Breakers

서울 합정동 양화진에는 조선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드렸던 선교사님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1885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에 찾아온 선교사님 수가 1559명입니다. 그중 양화진에는 조선에서 사역하다 순교한 395명의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선교사님들,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셔서 조선 땅에 복음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 결과 은혜의 복음이 나와 가족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양화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을 나누어 보십시오.

**연결어**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과 약속을 살피봅시다.

## 말씀 함께 읽기 Examine God's Word

요한계시록 2:1-11을 여러 번역본으로 읽어보십시오. 반복되는 단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에 동그라미나 밑줄로 표기해 보십시오.

개정개역	우리말성경	ESV
<p>2:1 &lt;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gt;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p> <p>2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p> <p>3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p> <p>4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p>	<p>2:1 “너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일곱 별을 잡으시고 일곱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p> <p>2 나는 네 행위들과 네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 또 네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 낸 것을 안다.</p> <p>3 또 네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p> <p>4 그러나 내가 네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네가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p>	<p>2:1 "To the angel of the church in Ephesus write: 'The words of him who holds the seven stars in his right hand, who walks among the seven golden lampstands.</p> <p>2 "I know your works, your toil and your patient endurance, and how you cannot bear with those who are evil, but have tested those who call themselves apostles and are not, and found them to be false.</p> <p>3 I know you are enduring patiently and bearing up for my name's sake, and you have not grown weary.</p> <p>4 But I have this against you, that you have abandoned the love you had at first.</p>

5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6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8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9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10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 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11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5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로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6 그러나 네가 잘한 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이 하는 짓들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7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8 “너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이, 곧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 내가 네 환난과 가난을 알지만 실은 네가 부자다. 또 내가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의 모욕도 알지만 실은 그들이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10 너는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몇을 감옥에 집어넣을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줄 것이다.

11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5 Remember therefore from where you have fallen; repent, and do the works you did at first. If not, I will come to you and remove your lampstand from its place, unless you repent.

6 Yet this you have: you hate the works of the Nicolaitans, which I also hate.

7 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 To the one who conquers I will grant to eat of the tree of life, which is in the paradise of God.’

8 “And to the angel of the church in Smyrna write: ‘The words of the first and the last, who died and came to life.

9 “I know your tribulation and your poverty (but you are rich) and the slander of those who say that they are Jews and are not, but are a synagogue of Satan.

10 Do not fear what you are about to suffer. Behold, the devil is about to throw some of you into prison, that you may be tested, and for ten days you will have tribulation. Be faithful unto death, and I will give you the crown of life.

11 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 The one who conquers will not be hurt by the second death.’

## 배경 이해하기 Understand Setting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당시 세 개의 큰 교역로가 통과하는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으며,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수상승배의 본거지이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에베소는 그 당시 대도시였습니다.

서머나는 에베소로부터 북쪽으로 약 37마일 떨어져 있는 항구도시였습니다. 파고스 언덕 기슭이 있어서 자연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했던 도시였습니다. 항구를 통해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



어졌습니다. 아시아 최초로 로마 신전이 세워졌던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교회에 주신 메세지를 통해 현대 교회들이 기억해야 할 성경적 원리를 살펴봅니다.

## 말씀 묵상 나눔 Meditate the Text

**1-1 < 관찰과 묵상 >**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한 인내로 칭찬받은 한편, 주님께 어떤 책망을 받았나요?(4절)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해설**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나오는 '수고'는 육체적이고 영적인 측면에서 탈진할 정도로, 모든 힘을 다해서 수고를 다했음을 의미합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지속적 인 믿음과 충성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심을 강조합니다. 그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마음과 행동을 깊이 알고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를 분별하고, 잘못된 교사들을 구분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지켜야 할 진리에 몰두한 나머지, 더 힘써 지켜야 할 사랑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1-2 < 적용과 나눔 >** 내가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 가졌던 감격, 열정, 사랑의 경험을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을 지속하기 위한 다짐과 방법을 나누어 보십시오.

**해설** 많은 신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말씀, 기도, 찬양하는 시간에 기쁨이 가득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처음 그 마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에베소 교회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의 지도자(이그나티우스)의 문헌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였으며, 다시 성장하게 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2-1 < 관찰과 묵상 >**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던 서머나 교회에 대해 주님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나요?(9절)

예수님은 환난과 궁핍 속에 있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해설** 9절에서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있던 지역에 사탄의 회당이 있음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그 당시 서머나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시기하

여 핍박했고, 로마의 법정에 고소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10절에서 서머나 교회에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표현은 고난의 기간이 길 수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정해진 기간임을 의미합니다. 비록 길게 느껴지는 기간이지만,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2-2 < 적용과 나눔 >**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답답한 상황 속에 놓일 때 나는 어떻게 인내하거나 극복하는지 나누어 보세요.

**해설** 인내하기 위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대화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는 인내하기 위해 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볼 것을 권면합니다. 서머나 지역은 여러 운동 경기가 있었고 군대가 주둔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승리한 이후에 받는 면류관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잘 이해하는 메타포를 사용하여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 **말씀다지기** Review the text

주님께서서는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주변에는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에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고 사형에 처해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시기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셨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옳게 분별하며, 처음 사랑을 가지고,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 **말씀으로 기도하기** Pray through the text

- 1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 2 비록 내가 지금 경험하는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상급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소서.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 일반적으로 천사를 의미하지만, 본문의 문맥을 고려하면 교회의 지도자나 대표를 의미합니다.

**2절** 내가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에베소 교회에는 모범적인 신앙생활의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수고’는 육체적이고 영적인 측면에서 탈진할 정도로, 모든 힘을 다해서 수고를 다했음을 의미합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지속적인 믿음과 충성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심을 강조합니다. 그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마음과 행동을 깊이 알고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It is used figuratively here for spiritual exhaustion caused by persecution and the battles against false teachers. The Ephesian Christians have not only stood firm for orthodoxy but have both triumphed over the heretics and maintained their spiritual watchfulness.” \_Grant R. Osborne, Revelation in Baker Exegetical Commentary, 80.

**4절** 너의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를 분별하고, 잘못된 교사들을 구분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지켜야 할 진리에 몰두한 나머지, 더 힘써 지켜야 할 사랑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It is clear that the Ephesians loved truth more than they loved God or one another. This does not mean that they were not believers or that they had no love at all, for the commendations of verses 2-3 would be impossible in that case. Rather, their early love had grown cold and been replaced with a harsh zeal for orthodoxy.” \_Osborne, Revelation in Baker Exegetical Commentary, 80.

**5절**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행인 것은, 에베소 교회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의 지도자 이그나티우스의 문헌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편지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였으며, 다시 성장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Fortunately, as Ignatius tells us (Ign. Eph. 1.1; 9.1), the church did heed this warning, repented, and once again became a thriving church.” \_Osborne, Revelation in Baker Exegetical Commentary, 80.

**6절** 니콜라당 초대 교회 당시 거짓된 교사들이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 중 한 무리가 니콜라당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단적인 사상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 계시록에서 언급된 다른 경계의 대상들(엡 2:14-15, 20-23 발람 선지자와 이세벨)의 공통점을 고려한다면, 우상숭배와 악행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Apparently, these heretics (for more detailed interaction with their teachings, see 2:6 on “Nicolaitans”) acted like wandering missionaries/teachers and went from house church to house church calling themselves “apostles.” \_Osborne, Revelation in Baker Exegetical Commentary, 79.

**7절**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이 열매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을 가리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언급된 생명나무는 에덴동산에 있었고, 죄를 지은 이후 아담과 하와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열매였습니다. 이 열매는 지혜와 의로움의 상징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잠언 3:18, 11:30, 15:4). “The promised gift is φαγ εἶν ἐκ τοῦ ξύλου τῆς ζωῆς(phagein ek tou xylou tēs zōēs, to eat from the tree of life). In Gen. 2:9 the tree of life was placed in the garden; but in 3:22-24 Adam and Eve were not allowed to partake of this tree because of their sin, and an angel with a flaming

sword guarded the tree, so they could not eat from it and gain immortality.” Osborne, Revelation in Baker Exegetical Commentary, 97.

**9절** 사탄의 회당 주님은 서머나 교회가 있던 지역에 사탄의 회당이 있음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그 당시 서머나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시기하여 로마의 법정에 고소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Yarbro Collins (1986: 313) believes that this slander by the “synagogue of Satan” refers specifically to a group of Jews who instigated legal action in the Roman courts against the Smyrna Christians.” \_Osborne, Revelation in Baker Exegetical Commentary, 97.

**10절a** 십 일 동안 환란 이 표현은 고난의 기간이 길 수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정해진 기간임을 의미합니다. 비록 길게 느껴지는 기간이지만,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을 암시합니다. “The main aspect is the limited yet quite severe duration of time symbolized in “for ten days.” God is in control and will make certain the period is not too great, but it will be a terrible time nevertheless.” \_Osborne, Revelation in Baker Exegetical Commentary, 103.

**10절b** 생명의 면류관 성경 안에서 면류관은 위대한 명예와 권위를 상징했습니다(계 4:4 of the 24 elders; 9:7). 서머나 지역은 여러 운동 경기가 있었고 군대가 주둔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승리한 이후에 받는 면류관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Smyrna was famed for its games, and so this would be a natural metaphor.” \_Osborne, Revelation in Baker Exegetical Commentary, 104.

**10절** 둘째 사망의 해 요한계시록 내에 죽음과 관련한 다른 구절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계 20:6, 14, 21:8). 그 의미는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며,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It is the “lake of fire,” the final eternal “death” beyond the mere physical death that ends this life.” \_Osborne, Revelation in Baker Exegetical Commentary, 104.

# • 11월 주요 시역일정과 기도제목 •

## 주요 시역 일정

- Mission On 단기선교팀(캄보디아 아웃리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 내년 1월에 진행되는 SWM 아웃리치와 튀르키예 아버지학교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봉사자들을 보내주소서.
- 대심방을 통해서 각 가정이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소서.
- HJI 가을학기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육 간에 강건케 하소서.
- 1기 관계기술훈련을 통해서 지원자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성숙한 관계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 35기 전도폭발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많은 훈련생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준비되게 하소서.
- 47기 일대일 양육자반에 참여하는 양육자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 받아, 제자를 양육하는 제자로 세워지게 하소서.
- EW 공동체에 더 많은 성도들이 순모임에 참여하여, 서로 사랑하며 영적으로 성장하는 은혜를 주시며, 봉사하는 섬김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도록 은혜를 주소서.
- 12월 9-14에 진행되는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 연말에 감사의 고백으로 한 해를 마무리 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새해를 잘 계획하게 하소서.

## 다음 세대 일정

- Sonlight에서 11월에 감사에 집중하여 살펴보는 말씀에 은혜를 주셔서, 자녀들이 이미 받은 수많은 복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한 달이 되게 하소서.
- Coram Deo에서 11월 23일에 뱅콧을 준비하고 있는데, 학생, 교사 학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서로에게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는 축제가 되게 하소서.
- NEXT에서 11월 22일에 Worship Night을 가지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소서.
- NEWave에 영적인 리더들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새로 찾아오는 새가족 학생들이 잘 정착하게 하소서.
- EW College 모임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매일 묵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주소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행 2:46-47).

# 2025년 순모임 프리뷰 일정

일시	내용	비고
1월 5일	오후 2시, 본당 순장 교구장	
2월 2일		
5월 4일		
6월 1일		
9월 7일		
10월 5일		
11월 2일	순장, 교구장 리트릿	

- 위 일정은 교회 사역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매달 셋째 주에 주보에 게재 될 프리뷰 광고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순장, 교구장 설문조사



Community that endures & ease pain together



엮은이 | 권준    펴낸이 | 공동체 목회자팀

연락처 | 425-488-1004

이메일 | [hyungjaecommunity@hyungjae.org](mailto:hyungjaecommunity@hyungjae.org)

주소 | 3727 240th St SE, Bothell, WA 98021



시애틀형제교회  
COMMUNITY CHURCH OF SEATTLE

Family • Faith • Holy Spirit • Mission